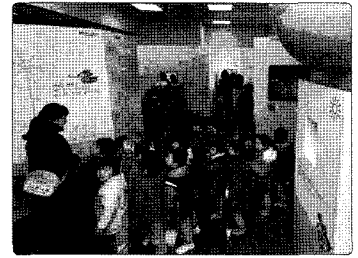


친환경 경영의 우수사례로 자리잡은 유통기업 홈플러스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 및 그린스토어 오픈



홈플러스가 국내 최초의 친환경적 점포인 '그린스토어'를 오픈하고 유치원생들로부터 일반인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과 영국의 가장 존경 받는 기업 테스코가 1999년 5월 합작한 삼성 테스코는 오늘날 홈플러스 그룹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Hyper(대형 매장) 115개점, Express(신개념의 대형 슈퍼) 193개점, 아티제 블랑제리 베이커리(신라호텔 제휴) 112개점, 신유통 서비스(보험, 통신, 웨딩, 여행, 신용카드, 이사서비스 등의 상품 운영),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가장 사랑 받는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창고형 할인점 일색이었던 국내 유통업계에, 고객의 가치를 우선하는 '가치점'과 '3세대 할인점' 개념을 도입하여 유통업계의 선진화를 이끌며 유통업계 혁신을 주도하였다. 특히 4세대 할인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 점포인 '그린 스토어'를 오픈하며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 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환경경영전략 4가지

홈플러스의 환경 경영 전략은 바로 홈플러스의 환경 철학에서부터 비롯된다. 홈플러스는 네가지 관점에서 환경을 접근하고 있다. 첫째, 환경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 둘째, 환경은 인류 존망의 전제 조건, 셋째, 환경은 지켜가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 넷째는 환경은 비용이 아닌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발표하기 수년전부터, 홈플러스는 CEO의 확고한 환경 경영 철학아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기 위한 환경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린 헥사곤(Green Hexagon)이라는 홈플러스만의 독특한 환경 경영 전략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CEO의 환경경영철학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핵심 전략 사항을 6개 부분으로 도출한 환경경영전략이다. 즉, 친환경 점포 만들기,



홈플러스 친환경에너지팀 |

tel.02-3459-7490 |
www.homeplus.co.kr
lobin.lee@samsung.tesco.com

친환경 프로세스, 친환경 소비생활, 미래를 위한 어린이 환경 캠페인, 친환경 네트워크, 환경경영 시스템의 6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다.



홈플러스 그린 책사근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이란?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핵심이자 본질은 탄소 저감이다. 전 세계가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중심에 바로 탄소 저감이 있다. 홈플러스도 국내 선도 유통업체로서 탄소 저감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트렌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린 책사근의 한 축인 환경경영 시스템에 도입 하였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탄소를 줄일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를 알고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에 대한 전략을 도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홈플러스는 2006년 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한 탄소 발자국 측정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당시 국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해외의 탄소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탄소 배출 범위와 모든 탄소 배출원을 조사하였다. 전사적 탄소 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료 (Raw data) 수집부터 각 데이터의 탄소 배출 전환까지 탄소 배출량 산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한 시스템(Direct Carbon Footprint Tool)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 월 배출량 정보를 CEO까지 공유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전기, 가스, 냉매, 물류, 출장으로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탄소 발자국 측정 시스템이 드디어 국내 기업 최초로 운영되는 순간이었다.

친환경 점포 그린 스토어 오픈

유통업체 특성상 전사 탄소 배출량의 89%는 점포에서 나온다. 탄소 발자국

측정 시스템을 통해 점포에서의 각 에너지 사용량과 냉매 등 탄소 배출원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저감방안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획기적인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이 가능하면서 대한민국 유통 점포의 친환경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차세대 개념의 점포를 오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야기한 그린핵사곤의 친환경 점포 만들기에 해당하는 제 4세대 점포 “그린스토어” 오픈이다.

어떠한 친환경 점포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가? 홈플러스는 크게 4가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친환경 점포를 통해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에너지/저탄소 건축물의 표준 제시는 물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친환경 커뮤니티 조성과 지속 가능 경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점포! 이를 위해 총 5섯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획기적인 탄소 저감, 둘째,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 셋째, 에너지 절감, 넷째, 자연 생태 공간 조성,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친환경 인증 확보였다.

탄소 발자국 측정 시스템과 탄소 저감 컨설팅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유통 점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친환경 아이템을 발굴해온 홈플러스는 그린스토어를 통해 동일한 규모의 기존 점포 대비 탄소 배출량 50%, 에너지 사용량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모든 친환경 아이템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 경제성, 적용 타당성등을 분석하여 그린스토어에 도입할 총 69가지의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그린 스토어에 적용된 69가지의 친환경 아이템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생산이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 발전, 풍력 및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포함된다. 둘째, 에너지 효율이다. 그린 스토어의 탄소 및 에너지 절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효율부분은 LED 조명, T5 램프, CO2 냉매, 폐열 재활용, 인버터, 조명 디밍 시스템, 중수/우수 재활용 등 다양한 최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이 집약 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동참할 수 있는 친환경 요소이다. 사실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점포의 탄소 저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인식 및 동참이다. 그린 스토어에는 고객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전시관이 운영됨은 물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방문시 그린 마일리지 제공”, “2차 포장재 줄이기 캠페인”, “냉동 평대 도어 설치” 등 다양한 고객 체험형 친환경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다.

2008년 10월 13일 부천시 여월동에 오픈한 그린스토어는 국내 최초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여하는 판매시설부문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인증을 획득하였다. 현재 그린스토어는 대한민국의 친환경 유통 건축물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외 수많은 정부 기관 및 기업에게 벤치마킹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 오픈한
부천 여월 그린스토어는 국내 최초로
판매시설부문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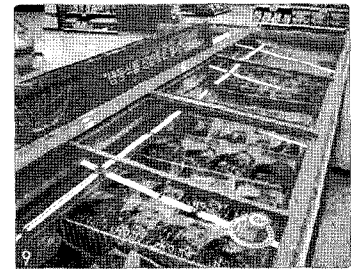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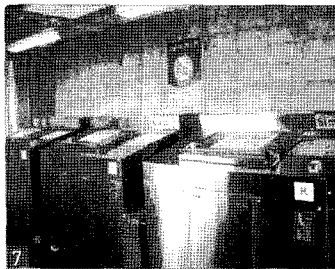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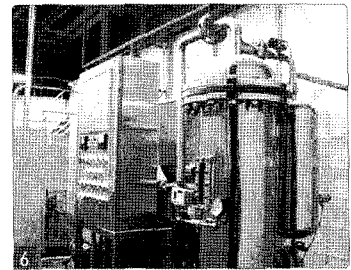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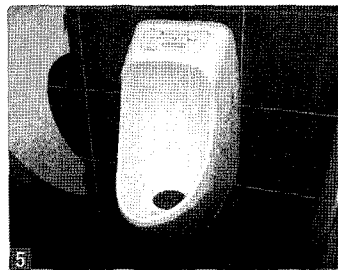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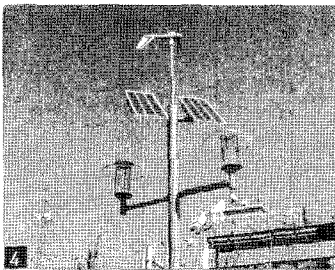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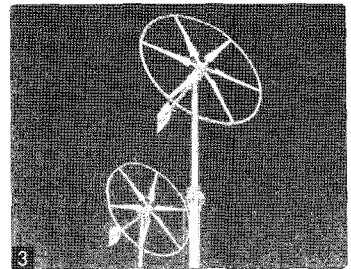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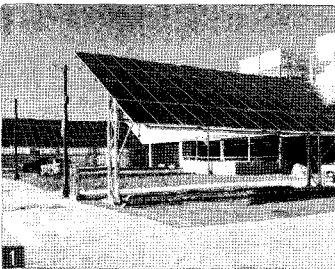


탄소 발자국 측정 시스템 개발과 그린 스토어 오픈의 의미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전사 탄소 배출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즉, 홈페이지 총 배출량은 물론, 각 항목별 및 사업장 별로 매우 자세하게 탄소 배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홈페이지는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면적당 탄소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 수립과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의 원인과 그 비중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최적의 탄소 저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적용 중에 있다.

그린스토어에 도입된 69가지의 친환경 아이템들은 과거 시도되지 않은 시범적인 도입과 운영이었다. 홈페이지는 이 시도를 통해 효과가 탁월하고 적용이 타당한 아이템을 선별해 다른 기존 점포들과 신규 점포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아이템 적용에만 그치지 않고 친환경적 점포 운영안을 개발하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린스토어는 홈페이지의 기후변화 대응에 파일럿 모델로서 그 역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점포의 친환경적 표준을 제시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1. 태양광 발전
2.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3. 풍력 발전
4. 풍력 및 태양광 겸용 가로등
5. 물 안쓰는 소변기
6. 우수 재활용
7.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시설
8. 2차 포장재 줄이기 캠페인
9. 냉동 평대 슬라이딩 도어 설치



그린스토어에 적용된 주요 친환경 요소 이미지